

# kiri Weekly

2013.8.12 제246호

## 이슈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 글로벌 이슈

영국의 텔레매틱스 자동차보험 판매 증가  
성장하는 중국의 인터넷 보험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황진태 연구위원, 이해랑 연구원

## 요약

- 최근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설계사들의 법적지위 변화와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9개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2,740명을 대상으로 2013.6.10~12일 동안 전화조사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조사결과 850명이 응답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3.4%p임.
- 조사결과
  - 보험설계사 직업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49.9%의 설계사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 20.2%가 ‘육아 등 가사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19.1%가 ‘전문가로서의 직업비전’이라고 응답함.
  - 보험회사의 설계사 지휘감독여부에 대해 95.5%가 지휘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험회사와 계약은 고용계약방식(19.6%)보다는 현재의 위촉계약방식(71.6%)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설계사들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95.6%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7%가 단체보험을, 나머지 24.3%는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단체보험 선호이유는 산재보험보다 넓은 보장범위(37.9%), 산재보험을 통한 보장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27.6%),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24.2%)으로 응답함.
  - 보험설계사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20.3%)보다 독립적인 개인사업가로서의 자율성보장(78.5%)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소득세 납부방식도 근로소득세(18.6%)보다는 사업소득세(75.6%)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소득 설계사들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 근로자성 인정으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추가비용(4대 사회보험, 퇴직금, 고정급여 등)이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칠 때, 설계사의 절반 이상(54.3%)이 소득감소를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응답함.
- 국내 보험설계사들은 법적인 근로자 신분 보장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가능성과 고용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1. 조사배경



- 2012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임.
    - 2012년 7월 심상정 의원, 2012년 9월 이목희 의원, 김경협 의원, 2013년 2월 정청래 의원이 이들 법률안에 대해 대표 발의함.
  - 우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됨.
  - 또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추진 중이며, 심상정 의원안의 경우 보험설계사들을 고용하는 보험회사들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함.
    -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의안번호: 465)	근로자범위 확대: 특정사업자를 위한 독립사업자를 근로자로 간주
노조법(의안번호: 464)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근로3권 등 노조법 전면 적용
산재보험법(의안번호: 467)	기존 특례조항 폐지,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 산재법 전면 적용, 산재 가입은 특수형태종사자의 선택이 아닌 사업주의 의무사항(신고 및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료징수법(의안번호: 472)	산재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준 도입: 산재법상 근로자 전제 시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심상정 의원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은 2003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안임.
  - 보험산업도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 사안에 대

해 귀추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고는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 및 보험설계사 법적 지위 인식에 대해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2. 보험설계사들의 현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

### 가. 조사방법

- 설문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 및 보험설계사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도권 및 지방지역 소재 생명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 전화설문 대상자는 삼성, 한화, 교보, 흥국, 신한, 미래에셋, 알리안츠, AIA, ING 등 9개 생명보험회사 소속으로 설문에 동의한 총 2,740명의 전속설계사임.
  - 설문조사기관은 서울마케팅리서치이며, 조사방법은 수도권 및 지방지역 소재의 동 설계사를 대상으로 2013년 6월 10~12일 동안 전화로 조사함.

〈표 2〉 보험설계사의 설문조사 표본 현황

(단위: 명)

회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한화	300	80	50	40	40	40	550
알리안츠	70	20	10	10	5	5	120
삼성	460	110	70	60	50	50	800
흥국	70	20	10	10	5	5	120
교보	290	70	40	40	30	30	500
신한	150	30	20	20	15	15	250
미래에셋	90	20	12	12	8	8	150
AIA	55	15	10	8	6	6	100
ING	90	18	12	12	9	9	150
9개사 계	1,575	383	234	212	168	168	2,740

■ 설문조사 결과, 850명이 전화로 응답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3.4%p임.

- 유효표본 중 남자 19.2%, 여자는 80.8%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설계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혼자 91.2%, 미혼자 8.8%로 기혼자의 비율이 압도적임.
- 연령대는 40~50대 보험설계사가 73.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수준은 고졸 이하 48.9%, 전문대졸 이상이 51.1%를 차지함.
- 월 소득수준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11.8%, 100~200만 원이 21.5%, 200~300만 원이 15.0%, 300~500만 원이 21.2%, 500만 원 초과가 26.0%를 차지함.
- 위촉차월 수는 13차월 미만 설계사가 27.0%로 가장 많았으며, 36차월 미만 20.4%, 60차월 미만 10.8%, 84차월 미만 8.7%, 120차월 미만 9.3%, 180차월 미만 10.5%, 180차월 이상이 13.2%를 차지함.
- 계약형태 중 위촉계약이 97.1%로 대부분이며, 95.5%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적 지위 인식에 대한 설문은 소득분포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 모집단의 소득분포와 유사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평균 기준 생명보험 9개사<sup>1)</sup>의 보험설계사 실제 월 소득분포는 유효표본(850명)의 소득분포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본고는 설문항목의 전체 의견에 대해 해당 유효표본의 자체 결과와 함께 실제 소득분포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줌.
  - 실제 소득분포를 반영하는 방법은 동 생명보험 9개사 보험설계사의 2012년 소득분포에 맞춰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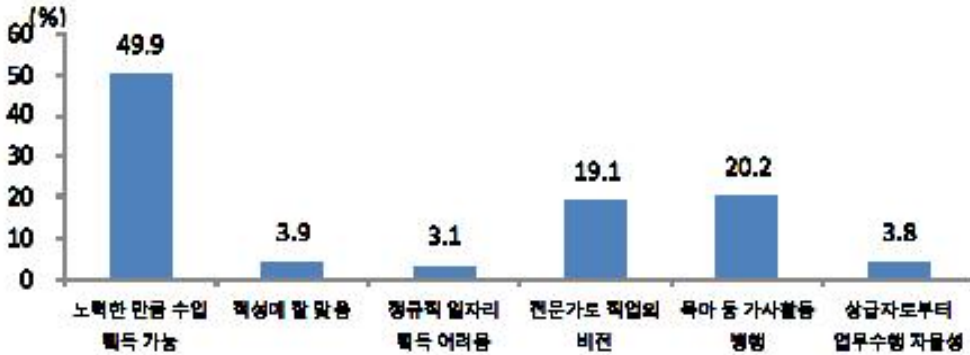
## 나. 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

■ 보험설계사의 직업 선택 동기는 주로 고소득 창출, 자율적인 시간활용,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들고 있음.

-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직업 선택 동기로 49.9%에 이르는 응답자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 20.2%가 ‘시간활용이 자유롭다’, 19.1%가 ‘전문가로서의 비전이 있다’로 응답함.

1) <표 2>를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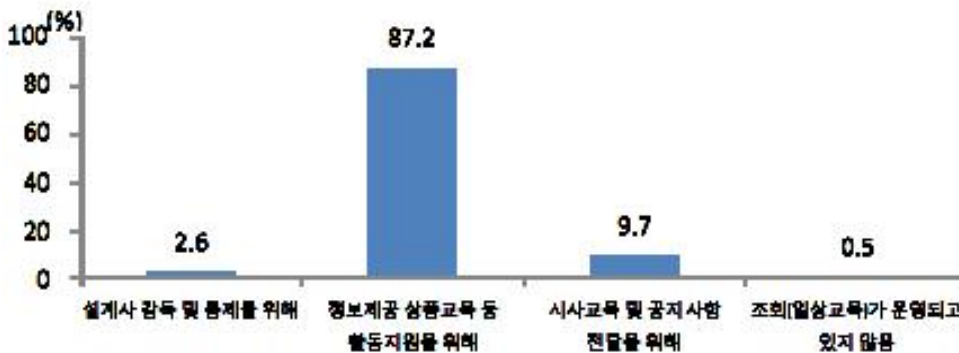
〈그림 1〉 보험설계사 직업의 선택 동기



■ 보험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조회에 대해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동 조회의 목적이 정보제공 및 상품교육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함.

- 조회운영의 목적이 정보제공 및 상품교육 등 영업활동 지원이라는 응답이 87.2%를 차지한 반면, 설계사 감독 및 통제라는 응답은 2.6%에 그침.
- 아울러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수당 삭감, 징계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회가 있는 보험회사 설계사 809명 중 98.1%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불이익이 없다고 응답함.
  - 유효표본 중 3명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아예 조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그림 2〉 보험회사의 조회운영 목적에 대한 인식



■ 보험설계사들이 영업활동 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함.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본인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이 95.5%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응답은 3.3%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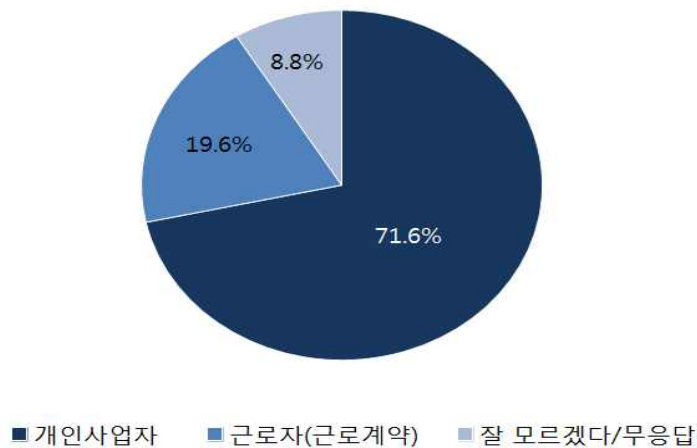
〈그림 3〉보험 회사의 설계사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인식



- 위촉 또는 고용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1.6%가 현행의 위촉계약(개인사업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 신분 선호는 71.6%, 근로자 신분 선호는 19.6%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 선호 응답자들의 선호 이유로는 주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0%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육아 및 가사 등 시간활용이 자유롭다’는 응답이 11.8%를 차지함.

〈그림 4〉보험설계사의 계약관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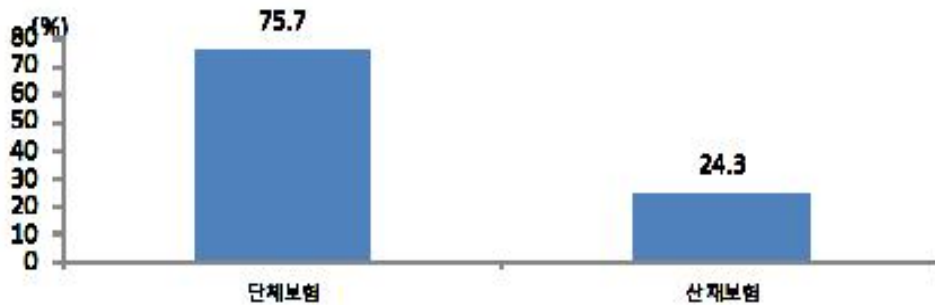


- 근로자 신분을 선호한 응답자들은 근로자 신분의 경우 복리후생(38.2%), 안정적 소득(32.0%), 고용안정(18.5%)이 장점이라고 응답함.

■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대부분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에 비해 단체보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 영업활동 중 재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95.6%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7%만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
- 응답자 중 75.7%가 ‘단체보험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단체보험의 넓은 보장범위(37.9%), 산재보험을 통한 보장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27.6%), 단체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24.2%)으로 응답함.
  - 이러한 조사결과의 배경에는 실제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이 단체보험 형태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현행법상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중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그림 5〉 단체보험 대(對) 산재보험 선호도



### 3. 보험설계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과 수용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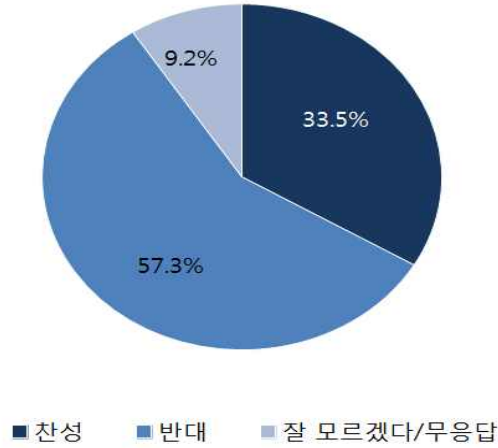
#### 가. 근로자성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응답자 중 33.5%가 찬성한 반면, 57.3%는 반대함.



- 응답자 중 중졸 이하 46.2%, 고졸 54.1%, 전문대졸 55.3%, 대졸 59.4%, 대학원 이상 61.9%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반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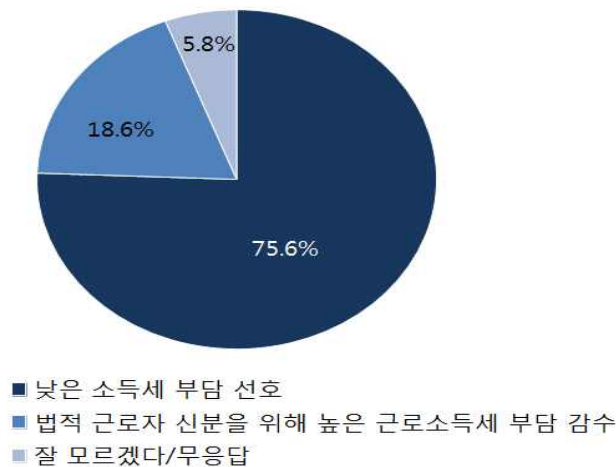
〈그림 6〉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태도



-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이 현행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세 납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소득세 납부 선호 응답이 75.6%, 근로소득세 선호가 18.6%로 나타남.
- 월 소득수준 기준 시 100만 원, 200만 원 이하 저소득 설계사의 경우에도 응답자 중 각각 71.0%, 82.5%가 사업소득세를 선호함.

〈그림 7〉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세납부 선호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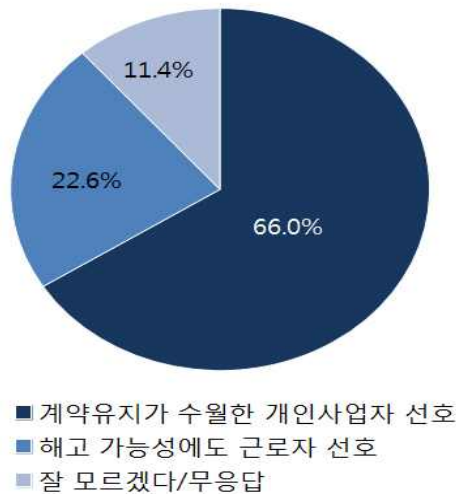


## 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

■ 보험설계사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적부진 또는 경영상 등의 이유로 설계사 신분보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가정한 경우, 66.0% 보험설계사가 낮은 실적에도 계약유지가 수월한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고, 22.6%가 해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신분을 선호한다고 응답함.

- 이는 앞선 계약관계 선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며, 보험설계사의 법적 신분에 대해 응답자들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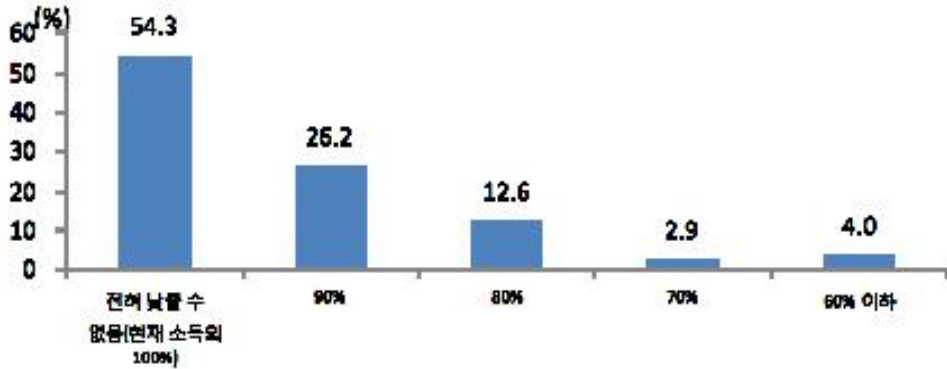
〈그림 8〉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시 신분선택에 대한 인식



■ 한편,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설계사들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공제 또는 부담하게 됨에 따라 설계사들이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 중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80%의 설계사가 10% 이내 감소에 대해 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동 추가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응답이 54.3%로 절반을 넘었으며, 10% 부담 가능성이 26.2%, 20% 부담 가능성이 12.6%로 나타남.
- 월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 설계사들도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해 30% 이상에 달하는 본인소득 감소함에도 이를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 시 감내 수준 정도



-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중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20.3%만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78.5%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100만 원 이하 저능률 설계사들도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20.0%)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78.0%)이 중요하다고 다수가 응답함.

〈그림 10〉 보험설계사 직업 선택시 중요 고려 요소



## 4. 조사결과의 한계와 시사점



- 먼저 본 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손해보험 설계사와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표본구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밝힘.
- 보험설계사 직업을 선택한 동기로 노력한 만큼의 고소득 창출이 가능, 자율적인 시간 활용, 금융전문가로서의 비전 순으로 응답자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직업의 장점이 개인의 자율적 노력에 따른 소득창출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 또한, 다수의 설계사들이 계약형태에 있어 근로자 신분보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다수의 설계사들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육아 및 가사활동 등 자율적인 시간활용을 장점으로 들고 있음.
- 대부분의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산재보험보다는 단체보험을 가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들이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넓은 보장범위, 보장의 용이성, 보험료 부담이 없다는 점임.
- 보험설계사들은 향후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등 추가비용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감내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들은 설계사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보장보다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이 우선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종합하면 생명보험 소속 설계사들은 설계사 직업에 대한 선택 동기와 직업으로서의 중요한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kiri](#)

〈부록: 설문조사 결과〉

〈부록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구성비	계약형태			소득세 납부 방법		
			위촉 (위임) 계약	근로 계약	기타	사업 소득세	근로 소득세	
전체	850	100.0	97.1	1.2	1.8	95.5	4.5	
성별	남자	163	19.2	98.8	0.6	0.6	98.2	1.8
	여자	687	80.8	96.7	1.3	2.0	94.9	5.1
혼인 여부	미혼	75	8.8	94.7	1.3	4.0	97.3	2.7
	기혼	775	91.2	97.3	1.2	1.5	95.4	4.6
연령대	20대	17	2.0	94.1	0.0	5.9	94.1	5.9
	30대	179	21.1	97.2	0.6	2.2	97.8	2.2
	40대	377	44.4	97.6	1.3	1.1	95.8	4.2
	50대	249	29.3	97.6	0.8	1.6	94.0	6.0
	60대 이상	28	3.3	85.7	7.1	7.1	92.9	7.1
학력	중졸 이하	13	1.5	92.3	7.7	0.0	92.3	7.7
	고졸	403	47.4	96.8	1.0	2.2	95.3	4.7
	전문대졸	103	12.1	97.1	1.0	1.9	99.0	1.0
	대졸	310	36.5	97.4	1.3	1.3	94.5	5.5
	대학원 이상	21	2.5	100.0	0.0	0.0	100.0	0.0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11.8	96.0	1.0	3.0	95.0	5.0
	200만 원 이하	183	21.5	95.6	1.7	2.7	92.4	7.6
	300만 원 이하	128	15.0	98.4	0.8	0.8	96.9	3.1
	500만 원 이하	180	21.2	96.7	1.7	1.7	98.9	1.1
	500만 원 초과	221	26.0	97.7	0.9	1.4	94.6	5.4
	결측치	38	4.5	100.0	0.0	0.0	37.4	2.6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27.0	96.4	1.8	1.8	97.3	2.7
	36차월 미만	168	20.4	97.0	1.2	1.8	95.8	4.2
	60차월 미만	89	10.8	100.0	0.0	0.0	95.5	4.5
	84차월 미만	72	8.7	98.6	1.4	0.0	95.8	4.2
	120차월 미만	77	9.3	96.1	0.0	3.9	93.5	6.5
	180차월 미만	87	10.5	98.9	1.1	0.0	95.4	4.6
	180차월 이상	109	13.2	93.6	1.8	4.6	93.6	6.4

〈부록 표 2〉 보험설계사 직업 선택 동기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 창출 가능)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로 직업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육아 등 가사활동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 상급자로부터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	원자료	850	49.2	4.1	3.1	19.3	20.1	4.2
	가중치 적용*	812	49.9	3.9	3.1	19.1	20.2	3.8
성별	남자	163	66.3	5.5	3.1	21.5	0.0	3.7
	여자	687	45.1	3.8	3.1	18.8	24.9	4.4
혼인 여부	미혼	75	61.3	4.0	1.3	26.7	2.7	4.0
	기혼	775	48.0	4.1	3.2	18.6	21.8	4.3
연령대	20대	17	58.8	0.0	5.9	23.5	11.8	0.0
	30대	179	47.5	3.9	1.1	21.8	21.2	4.5
	40대	377	49.3	4.2	2.9	19.4	21.2	2.9
	50대	249	50.2	4.0	4.0	18.1	18.1	5.6
	60대 이상	28	42.9	7.1	7.1	10.7	21.4	10.7
학력	중졸 이하	13	53.8	15.4	0.0	0.0	23.1	7.7
	고졸	403	45.2	3.2	3.5	18.4	24.6	5.2
	전문대졸	103	44.7	2.9	2.9	17.5	31.1	1.0
	대졸	310	55.5	5.2	2.9	21.6	11.3	3.5
	대학원 이상	21	52.4	4.8	0.0	23.8	9.5	9.5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53.0	2.0	3.0	20.0	20.0	2.0
	200만 원 이하	183	49.2	4.4	4.4	19.1	20.2	2.7
	300만 원 이하	128	53.9	5.5	1.6	14.1	21.1	3.9
	500만 원 이하	180	49.4	5.0	1.7	18.9	18.9	6.1
	500만 원 초과	221	43.0	3.6	4.5	22.6	20.8	5.4
	결측치	38	57.9	2.6	0.0	18.4	18.4	2.6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48.0	4.9	4.9	22.0	16.6	3.6
	36차월 미만	168	47.6	1.2	4.8	22.0	19.6	4.8
	60차월 미만	89	48.3	3.4	3.4	21.3	20.2	3.4
	84차월 미만	72	56.9	8.3	0.0	18.1	13.9	2.8
	120차월 미만	77	54.5	3.9	2.6	19.5	18.2	1.3
	180차월 미만	87	47.1	5.7	1.1	13.8	26.4	5.7
	180차월 이상	109	42.2	4.6	0.9	14.7	26.4	8.3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3〉 조회운영의 목적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설계사 감독 및 통제를 위해	정보제공 상품교육 등 활동지원을 위해	시사교육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조회(일상교육) 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전체	원자료	850	2.7	87.5	9.4	0.4
	가중치 적용*	812	2.6	87.2	9.7	0.5
성별	남자	163	6.1	74.8	17.8	1.2
	여자	687	1.9	90.5	7.4	0.1
혼인 여부	미혼	75	9.3	66.7	24.0	0.0
	기혼	775	2.1	89.5	8.0	0.4
연령대	20대	17	5.9	88.2	5.9	0.0
	30대	179	3.9	79.9	15.6	0.6
	40대	377	2.7	88.9	8.2	0.3
	50대	249	1.6	90.8	7.2	0.4
	60대 이상	28	3.6	89.3	7.1	0.0
학력	중졸 이하	13	0.0	84.6	15.4	0.0
	고졸	403	2.0	90.3	7.7	0.0
	전문대졸	103	1.9	85.4	12.6	0.0
	대졸	310	3.9	84.8	10.3	1.0
	대학원 이상	21	4.8	85.7	9.5	0.0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2.0	85.0	12.0	1.0
	200만 원 이하	183	2.2	89.6	8.2	0.0
	300만 원 이하	128	3.1	85.9	10.2	0.8
	500만 원 이하	180	2.8	86.7	10.0	0.5
	500만 원 초과	221	3.2	89.1	7.7	0.0
	결측치	38	2.6	84.2	13.2	0.0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4.0	84.3	11.7	0.0
	36차월 미만	168	1.8	86.3	11.3	0.6
	60차월 미만	89	3.4	91.0	4.5	1.1
	84차월 미만	72	6.9	88.9	4.2	0.0
	120차월 미만	77	0.0	90.9	9.1	0.0
	180차월 미만	87	3.4	88.5	6.9	1.1
	180차월 이상	109	0.0	88.1	11.9	0.0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4〉 조회 불참 시 불이익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원자료	847	1.9	98.1
	가중치 적용*	809	1.9	98.1
성별	남자	161	5.0	95.0
	여자	686	1.2	98.8
혼인 여부	미혼	75	0.0	100.0
	기혼	772	2.1	97.9
연령대	20대	17	0.0	100.0
	30대	178	2.8	97.2
	40대	376	1.9	98.1
	50대	248	1.6	98.4
	60대 이상	28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3	0.0	100.0
	고졸	403	0.5	99.5
	전문대졸	103	2.9	97.1
	대졸	307	3.3	96.7
	대학원 이상	21	4.8	95.2
소득	100만 원 이하	99	2.0	98.0
	200만 원 이하	183	1.1	98.9
	300만 원 이하	127	1.6	98.4
	500만 원 이하	179	1.1	98.9
	500만 원 초과	221	3.6	96.4
	결측치	38	0.0	100.0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1.8	98.2
	36차월 미만	168	1.2	98.8
	60차월 미만	89	4.5	95.5
	84차월 미만	72	1.4	98.6
	120차월 미만	77	2.6	97.4
	180차월 미만	87	2.3	97.7
	180차월 이상	109	0.9	99.1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5〉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영업장소, 시간,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결정한다	대부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기타	
전체	원자료	850	3.3	95.5	1.2
	가중치 적용*	812	3.3	95.5	1.2
성별	남자	163	0.6	98.8	0.6
	여자	687	3.9	94.8	1.3
혼인 여부	미혼	75	6.7	92.0	1.3
	기혼	775	3.0	95.9	1.2
연령대	20대	17	5.9	88.2	5.9
	30대	179	4.5	94.4	1.1
	40대	377	3.4	95.5	1.1
	50대	249	2.4	96.4	1.2
	60대 이상	28	0.0	100	0.0
학력	중졸 이하	13	7.7	92.3	0.0
	고졸	403	4.0	94.5	1.5
	전문대졸	103	4.9	94.2	1.0
	대졸	310	1.9	97.1	1.0
	대학원 이상	21	0.0	100.0	0.0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3.0	96.0	1.0
	200만 원 이하	183	4.9	93.5	1.6
	300만 원 이하	128	0.8	97.7	1.6
	500만 원 이하	180	3.9	95.0	1.1
	500만 원 초과	221	3.2	95.9	0.9
	결측치	38	2.6	97.4	0.0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2.7	95.5	1.8
	36차월 미만	168	3.0	95.8	1.2
	60차월 미만	89	3.4	96.6	0.0
	84차월 미만	72	9.7	90.3	0.0
	120차월 미만	77	1.3	97.4	1.3
	180차월 미만	87	0.0	100.0	0.0
	180차월 이상	109	5.5	91.7	2.8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6〉 계약관계 선호도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개인사업자	근로자 (근로계약)	잘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원자료	850	70.7	20.2	9.1
	가중치 적용*	812	71.6	19.6	8.8
성별	남자	163	77.3	14.7	8.0
	여자	687	69.1	21.5	9.3
혼인 여부	미혼	75	72.0	17.3	10.7
	기혼	775	70.6	20.5	8.9
연령대	20대	17	76.5	17.6	5.9
	30대	179	73.2	19.0	7.8
	40대	377	72.4	19.9	7.7
	50대	249	65.1	22.5	12.4
	60대 이상	28	78.6	14.3	7.1
학력	중졸 이하	13	61.5	23.1	15.4
	고졸	403	67.7	21.6	10.7
	전문대졸	103	71.8	20.4	7.8
	대졸	310	74.2	18.7	7.1
	대학원 이상	21	76.2	14.3	9.5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71.0	21.0	8.0
	200만 원 이하	183	76.0	14.2	9.8
	300만 원 이하	128	75.0	15.6	9.4
	500만 원 이하	180	74.4	19.4	6.1
	500만 원 초과	221	61.1	28.1	10.8
	결측치	38	68.4	21.1	10.5
위축차월	13차월 미만	223	70.9	19.7	9.4
	36차월 미만	168	71.4	22.6	6.0
	60차월 미만	89	64.0	27.0	9.0
	84차월 미만	72	68.1	19.4	12.5
	120차월 미만	77	79.2	19.5	1.3
	180차월 미만	87	72.4	16.1	11.5
	180차월 이상	109	67.0	18.3	14.7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7〉 단체보험 대(對) 산재보험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선호하는 보험	
			단체보험	산재보험
전체	원자료	850	75.2	24.8
	가중치 적용*	812	75.7	24.3
성별	남자	163	76.7	23.3
	여자	687	74.8	25.2
혼인 여부	미혼	75	72.0	28.0
	기혼	775	75.5	24.5
연령대	20대	17	70.6	29.4
	30대	179	76.0	24.0
	40대	377	76.7	23.3
	50대	249	72.3	27.7
	60대 이상	28	78.6	21.4
학력	중졸 이하	13	84.6	15.4
	고졸	403	72.5	27.5
	전문대졸	103	75.7	24.3
	대졸	310	77.4	22.6
	대학원 이상	21	85.7	14.3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78.0	22.0
	200만 원 이하	183	73.8	26.2
	300만 원 이하	128	75.8	24.2
	500만 원 이하	180	80.0	20.0
	500만 원 초과	221	70.6	29.4
	결측치	38	76.3	23.7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74.4	25.6
	36차월 미만	168	79.2	20.8
	60차월 미만	89	78.7	21.3
	84차월 미만	72	72.2	27.8
	120차월 미만	77	75.3	24.7
	180차월 미만	87	70.1	29.9
	180차월 이상	109	73.4	26.6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8〉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원자료	850	33.9	56.2	9.9
	가중치 적용*	812	33.5	57.3	9.2
성별	남자	163	26.4	65.6	8.0
	여자	687	35.7	54.0	10.3
혼인 여부	미혼	75	30.7	58.7	10.7
	기혼	775	34.2	56.0	9.8
연령대	20대	17	35.3	58.8	5.9
	30대	179	27.9	60.9	11.2
	40대	377	35.0	55.7	9.3
	50대	249	37.3	52.2	10.4
	60대 이상	28	25.0	67.9	7.1
학력	중졸 이하	13	53.8	46.2	0.0
	고졸	403	35.5	54.1	10.4
	전문대졸	103	32.0	55.3	12.6
	대졸	310	31.9	59.4	8.7
	대학원 이상	21	28.6	61.9	9.5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34.0	60.0	6.0
	200만 원 이하	183	33.9	54.1	12.0
	300만 원 이하	128	26.6	64.8	8.6
	500만 원 이하	180	31.1	58.9	10.0
	500만 원 초과	221	40.7	48.9	10.4
	결측치	38	31.6	57.9	10.5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31.8	59.6	8.5
	36차월 미만	168	33.9	59.5	6.5
	60차월 미만	89	37.1	52.8	10.1
	84차월 미만	72	36.1	50.0	13.9
	120차월 미만	77	27.3	61.0	11.7
	180차월 미만	87	37.9	52.9	9.2
	180차월 이상	109	39.4	48.6	11.9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9〉 기존 사업소득세 대비 높은 근로소득세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현행대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낮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	법적 근로자 신분을 갖는 대신에 높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겠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원자료	850	75.2	19.2	5.6
	가중치 적용*	812	75.6	18.6	5.8
성별	남자	163	77.9	17.2	4.9
	여자	687	74.5	19.7	5.8
혼인 여부	미혼	75	74.7	16.0	9.3
	기혼	775	75.2	19.5	5.3
연령대	20대	17	70.6	17.6	11.8
	30대	179	82.7	12.8	4.5
	40대	377	74.0	21.8	4.2
	50대	249	72.7	19.3	8.0
	60대 이상	28	67.9	25.0	7.1
학력	중졸 이하	13	84.6	15.4	0.0
	고졸	403	72.0	20.8	7.2
	전문대졸	103	75.7	19.4	4.9
	대졸	310	78.7	17.4	3.9
	대학원 이상	21	76.2	14.3	9.5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71.0	21.0	8.0
	200만 원 이하	183	82.5	13.1	4.4
	300만 원 이하	128	82.0	13.3	4.7
	500만 원 이하	180	75.0	20.6	4.4
	500만 원 초과	221	68.3	24.9	6.8
	결측치	38	68.4	23.7	7.9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76.7	17.5	5.8
	36차월 미만	168	79.8	14.3	6.0
	60차월 미만	89	73.0	21.3	5.6
	84차월 미만	72	72.2	20.8	6.9
	120차월 미만	77	77.9	22.1	0.0
	180차월 미만	87	66.7	25.3	8.0
	180차월 이상	109	69.7	22.9	7.3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10〉 보험설계사 신분보장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낮은 실적에도 비교적 계약유지가 수월한 개인사업자 선호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된다 해도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 인정 선호	잘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원자료	850	66.6	22.4	11.1
	가중치 적용*	812	66.0	22.6	11.4
성별	남자	163	72.4	20.9	6.7
	여자	687	65.2	22.7	12.1
혼인 여부	미혼	75	73.3	20.0	6.7
	기혼	775	65.9	22.6	11.5
연령대	20대	17	70.6	17.6	11.8
	30대	179	70.9	20.1	8.9
	40대	377	67.4	21.8	10.9
	50대	249	61.4	24.9	13.7
	60대 이상	28	71.4	25.0	3.6
학력	중졸 이하	13	69.2	23.1	7.7
	고졸	403	60.8	25.1	14.1
	전문대졸	103	69.9	23.3	6.8
	대졸	310	72.3	18.7	9.0
	대학원 이상	21	76.2	19.0	4.8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62.0	25.0	13.0
	200만 원 이하	183	67.2	20.8	12.0
	300만 원 이하	128	70.3	19.5	10.2
	500만 원 이하	180	66.1	22.8	11.1
	500만 원 초과	221	66.5	24.0	9.5
	결측치	38	65.8	21.0	13.2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70.4	19.7	9.9
	36차월 미만	168	69.0	25.0	6.0
	60차월 미만	89	58.4	23.6	18.0
	84차월 미만	72	68.1	20.8	11.1
	120차월 미만	77	68.8	19.5	11.7
	180차월 미만	87	60.9	23.0	16.1
	180차월 이상	109	59.6	27.5	12.8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11〉 실질소득 저하 시 감내 수준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전혀 낮출 수 없음 (현재소득의 100%)	90%	80%	70%	60% 이하
전체	원자료	850	54.0	26.4	12.4	3.5	3.8
	가중치 적용*	812	54.3	26.2	12.6	2.9	4.0
성별	남자	163	65.6	16.0	14.1	2.5	1.8
	여자	687	51.2	28.8	11.9	3.8	4.2
혼인 여부	미혼	75	58.7	21.3	18.7	0.0	1.3
	기혼	775	53.5	26.8	11.7	3.9	4.0
연령대	20대	17	52.9	17.6	29.4	0.0	0.0
	30대	179	53.6	24.6	11.7	5.6	4.5
	40대	377	53.8	28.6	11.9	3.2	2.4
	50대	249	53.0	26.5	13.7	2.0	4.8
	60대 이상	28	67.9	10.7	0.0	10.7	10.7
학력	중졸 이하	13	53.8	15.4	15.4	15.4	0.0
	고졸	403	55.3	25.1	12.2	3.5	4.0
	전문대졸	103	48.5	33.0	15.5	0.0	2.9
	대졸	310	53.5	26.1	11.9	4.5	3.9
	대학원 이상	21	61.9	28.6	4.8	0.0	4.8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54.0	26.0	14.0	1.0	5.0
	200만 원 이하	183	54.6	26.2	13.1	2.7	3.3
	300만 원 이하	128	54.7	27.3	11.7	2.3	3.9
	500만 원 이하	180	58.3	23.3	10.0	5.6	2.8
	500만 원 초과	221	49.8	28.5	13.1	3.6	5.0
	결측치	38	52.6	26.3	13.2	7.9	0.0
위축차월	13차월 미만	223	56.5	26.9	10.3	2.7	3.6
	36차월 미만	168	54.8	24.4	11.3	3.6	6.0
	60차월 미만	89	46.1	29.2	18.0	5.6	1.1
	84차월 미만	72	55.6	19.4	15.3	4.2	5.6
	120차월 미만	77	50.6	28.6	10.4	5.2	5.2
	180차월 미만	87	50.6	31.0	14.9	2.3	1.1
	180차월 이상	109	56.9	23.9	12.8	3.7	2.8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표 12〉 보험설계사 근무 시 중요한 점

(단위: 명, %)

변수		사례 수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보장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의 자율성 보장	기타(없음/모름/ 거절)
전체	월자료	850	21.1	78.0	0.9
	가중치 적용*	812	20.3	78.5	1.2
성별	남자	163	16.6	82.2	1.2
	여자	687	22.1	77.0	0.9
혼인 여부	미혼	75	14.7	85.3	0.0
	기혼	775	21.7	77.3	1.0
연령대	20대	17	23.5	76.5	0.0
	30대	179	17.3	82.1	0.6
	40대	377	21.0	78.0	1.1
	50대	249	24.5	74.7	0.8
	60대 이상	28	14.3	82.1	3.6
학력	중졸 이하	13	30.8	69.2	0.0
	고졸	403	22.3	76.2	1.5
	전문대졸	103	17.5	82.5	0.0
	대졸	310	20.3	79.0	0.6
	대학원 이상	21	19.0	81.0	0.0
소득	100만 원 이하	100	20.0	78.0	2.0
	200만 원 이하	183	18.6	81.4	0.0
	300만 원 이하	128	14.8	82.8	2.3
	500만 원 이하	180	21.7	77.2	1.1
	500만 원 초과	221	26.7	72.8	0.5
	결측치	38	21.0	79.0	0.0
위촉차월	13차월 미만	223	20.6	78.9	0.4
	36차월 미만	168	16.1	82.7	1.2
	60차월 미만	89	28.1	71.9	0.0
	84차월 미만	72	18.1	81.9	0.0
	120차월 미만	77	19.5	80.5	0.0
	180차월 미만	87	26.4	71.3	2.3
	180차월 이상	109	24.8	73.4	1.8

주: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 9개사 소속 설계사들의 2012년 실제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부록: 설문지〉

보험설계사의 직업의식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울마케팅리서치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면접원 000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보험연구원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응답자들의 의견과 함께 통계적으로만 이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전혀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진행은 약 5분 정도 걸리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 주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회사명		지역	

[보험설계사 선택 동기]

문1. 귀하께서는 보험설계사로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2년 미만      ③ 3년 미만      ④ 5년 미만      ⑤ 5년 이상

문2. 귀하께서 보험설계사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고소득 창출 가능)  
 ②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③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④ 전문가로 직업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⑤ 육아 등 가사활동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⑥ 업무수행에 있어 상급자의 지시나 감독으로부터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활동 및 활동만족도]

문3. 귀하께서 활동하시는 보험회사가 조회(일상교육)를 운영하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조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설계사 감독 및 통제를 위해  
 ② 정보제공, 상품교육 등 활동지원을 위해  
 ③ 시사교육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문8-2. 근로자 신분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이 안정되기 때문에
- ② 개인사업자에 비해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에(쉽게 해촉되지 않기 때문에)
- ③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리후생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 ④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므로

###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태도]

문9. 귀하의 회사는 보험설계사 활동 중 재해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까?

- ① 가입해 주고 있다
- ② 가입해 주고 있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무응답

문10. 귀하는 설계사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까?

- ① 단체보험 (→ 문10-1로 이동)
- ② 산재보험 (→ 문10-2로 이동)

문10-1.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산재보험보다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 ② 산재보험보다 보장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 ③ 산재보험은 보장받기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 ④ 본인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 ⑤ 회사가 단체보험을 강요해서

문10-2.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단체보험보다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 ② 단체보험보다 보장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 ③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 ④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 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라 보장에 대한 신뢰가 가서



[배경질문]

Q1. 혼인여부는 어떻습니까?

- ①미혼                      ②기혼

Q2. 학력은 어떠합니까?

- ①중졸 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              ④대졸                      ⑤대학원 이상

Q3. 귀하께서 현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3차월 미만    ② 36차월 미만    ③ 60차월 미만    ④ 84차월 미만  
⑤ 120차월 미만    ⑥ 180차월 미만    ⑦ 180차월 이상

Q4. 귀하의 현재 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0만 원 이하                      ② 201~300만 원                      ③ 301~500만 원  
④ 500만 원 초과                      ⑤ 응답거부

Q5. 귀하께서 휴직 또는 전직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몇 회이십니까?

(    )회

Q6. 귀하께서 월평균 신계약 건수와 모집액(환산보험료)은 얼마입니까?

(    )건                      (    )만 원

Q7. 귀하께서 관리하는 보유고객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Q8. 귀하께서 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종신보험                                      ② 저축성보험(연금 포함)  
③ 치명적 질병보험(CI)                      ④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⑤ 변액보험(종신, 연금, 유니버설)                      ⑥ 기타 (                                      )

※ 바쁘신 시간에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